

박영두를 아시나요? ...현대사에 가려진 이름들

〈삼정교육대 희생자〉

민주주의 잔혹사

홍석률 지음

한 역사학자가 논문을 쓰기 위해 사료를 뒤적거리다가 특이한 사진을 보게 된다. 1960년 4월 25~26일, 한복을 입은 경남 마산지역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시위를 벌이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었다.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을 발표하기 전이었다. 기존 4·19혁명은 같은 날 서울 시내 대학교수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가두시위를 벌이는 모습만을 거론한다. 신문기사나 사료집 등 대부분의 역사 서술에서 배제됐지만 당시 여성들의 시위 참여는 4월 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홍석률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가 최근 펴낸 '민주주의 잔혹사'는 일반적인 역사서술에서 빠져버린 할머니와 여성노동자, 도시빈민 등 주변부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저자는 "한국 현대사 서술에서 가려진 사람들과 희생된 역사적 가능성에 주목하여 일종의 사건사 서술을 시도했다"면서 "가려진 이름들에 주목하는 또다른 이유는 실현되지 못한 희생된 역사적 가능성을 되새기기 위해서다"고 집필의도를 밝혔다.

'한국현대사의 가려진 이름들'이라는 부제를 단 이 책은 '박정희와 6월항쟁', '박영두와 삼정교육대', '여성 노동자와 동일방직 사건', '마산 할머니와 4월 혁명', '학살된 민간인과 한국전쟁' 등 한국현대사의 8개 주요 장면을 꼼꼼하게



들어다본다.

박영두는 삼정교육대에 끌려가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맞은 인물이다. 1980년 8월, 신군부 세력은 정

의사회 구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회정화운동을 벌인다. '불량배'로 지목된 사람이나 노조운동가, 언론인 등 6만여 명이 '삼정교육대'로 강제 연행된다.

박영두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는 전방부대에서 하는 가혹한 근로봉사를 마치고도 재판 없이 다시 '사회보호법'에 의해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경북 청송교도소에 갇힌다. 그곳에서 그는 부당한 억압에 저항하다 교도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받아 사망했다. 한 도시빈민의 외침이 국가권력의 폭력에 묻혀버린 것이다.

주변부 사람들을 기록해야만 하는 이유는 뭘까? 저자는 "주변부의 약자를 기록하지 않는 역사는 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역량을 실현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고 차별과 무시 속에서 소진시켜 버린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역사발전의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제약하는 것이다"고 강조한다.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6·10 항쟁과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등 이 책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30년, 또는 60여년 전의 박제화된 과거 역사가 아니다.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과 인권·노동 탄압이



1960년 4월25일 경남 마산지역 할머니들이 '죽은 학생 책임지고 리(승만) 대통령 물러가라'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같은 날 서울에서는 대학교수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가두행진을 했다. 대부분의 4월 혁명은 대학교수들만 기억할 뿐 주변부인 여성들의 참여와 역할은 기록에서 배제시켰다. 〈창비 제공〉

현재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1980년 10월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대로 된 토론이나 여론수렴 없이 처리한 '사회보호법'은 여전히 서술 퍼즐게 살 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책은 1968년 1월 발생한 미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에 따른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며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도움이 될 만한 해결책을 시사한다.

〈창비·1만5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폭정**=출간 2주만에 위상된 포스트 베스트셀러 1위,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3위, 아마존 종합 3위까지 오르며 돌풍을 일으켰다. 원서는 손바닥만 한 사이즈에 128페이지에 불과하지만 파시즘과 홀로코스트 같은 20세기의 비극을 통해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책이다. 책은 '폭정'을 막기 위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역사의 교훈 20가지를 담고 있다. 〈열린책들·1만2000원〉

▲**토스카의 키스=오페라 '토스카'를 배경으로 한 정통 추리소설. 저자의 전작 '에콜 드 파리 살인사건'에 이은 예술 탐정 시리즈 2탄이다. 예술적인 재능을 타고났지만, 한 곳에 정착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자유로운 영혼의 프리터 순이치로와 외조카인 순이치로를 늘 걱정하는 운노 형사가 힘을 모아 예술과 관련된 불가사의한 사건을 풀어나가는 시리즈다. 진정한 예술을 향한 예술가들의 광기어린 모습을 섬세하게 그리고 있다.**

〈한스미디어·1만3500원〉
▲**블랙 코리아=어둠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의 고교, 공부의 달레마, 청년 실업, 결혼, 빈부격차, 주거문제 등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어두운 사회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세계의 정치경제에 얽매인 대한민국의 속사정, 국내의 사회경제적 이슈들까지 면밀히 분석해 대한민국의 현재를 제대로 짚어주었다. 특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 세대의 비극을 거시적인 사회 시스템을 분석해 그 원인을 명명백백 밝혔다.**

〈길벗·1만4500원〉
▲**맛있는 자연주의 레시피 120=건강과 간편함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120가지 자연주의 레시피를 소개**



한다. 한 주에 단 하루, 몇 시간만 투자해 주간 식단 계획을 짜고 여기에 활용할 재료와 기본 요리를 미리 준비해두면 일주일 내내 빠르고 간편하게 자연주의 식탁을 차릴 수 있다. 주방에서 효율성뿐 아니라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는 비법을 통해 어렵지 않게 자연주의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시그마북스·1만5000원〉
▲**촛불의 헌법학=헌법학자 이준일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에서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국회 소추 의결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차체해 분석했다. 촛불시위를 통해 나타난 시민의 열망이 국회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이르게까지 된 과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한 과정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에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은 점은 아쉬움을 남기는 대목이라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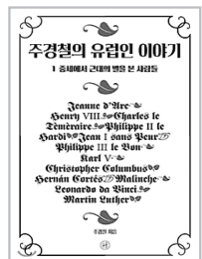
중세에 발을 딛고 근대를 보며 살았던 8명의 유럽인

주경철의 유럽인 이야기 1

주경철 지음

특이할 것 하나 없는 평범한 시골 소녀는 어느날 신의 목소리를 듣고 전쟁에 나선다. '살아 있는 성녀'로 불린 그녀는 백년전쟁의 포화 속으로 뛰어들어 오를레앙을 되찾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마녀'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12가지 혐의를 받은 그녀, 잔 다르크는 화형을 당한다.

'제가 드디어 에덴동산을 보았습니다.' 1492년,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상륙한 그는 외쳤다. 이단에 가까운 정도로 기이한 중세적 종말론에 의지했던



그, 콜럼버스는 근대 세계로 나아가는 문화를 열었다.

'대항해시대', '히스토리야', '문명과 바다' 등을 통해 '근대 세계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꾸준히 탐구해온 주경철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와 신작 '주경철의 유럽인 이야기-1 중세에서 근대의 별을 본 사람들'은 8명의 인물을 통해 그려내는 근대 유럽사다. '인간이 역사를 만들고 역사가 인간을 만든다'는 말처럼 책은 각 인물을 통해 유럽의 역사라는 큰 흐름을 읽어낸다.

'유럽인 이야기'는 '근대의 빛과 그림자', '세계의 변화를 주도한 사람들' 등 총 3권으로 완간될 예정이다.

그가 불러낸 8명은 중세 말과 근대 초에 살았던 인물로 한쪽 발은 중세에 둔 채 두 눈은 떠오르는 근대의 별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시대가 이들을 불러냈고 다시 이들의 삶이 시대의 흐름을 가속화시켰다.

영화 '천일의 엔'으로 많이 알려진 헨리 8세는 강력한 왕조국가를 만들기 위해 여성 편력도 마다하지 않은 존재였고 형수였던 캐서린과의 이혼 문제는 영국과 유럽 전체의 정치·종교 문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 과학과 예술 전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만능인' 레

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 현상이 얼마나 심도있고 광범위한 차원이었는지 보여주는 인물이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통해 하나의 정신 세계를 유지해왔던 유럽 문명의 돌이킬 수 없는 분열 상태를 만들어냈다.

그밖에 프랑스 왕실의 작은 가문으로 출발했지만 유럽 대륙 중심부에 거대한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야심을 품었던 루르르 공작들과 한 때 유럽 영토의 절반을 차지하고 남아메리카와 필리핀에 식민지를 보유, 세계를 아우르는 기독교 제국을 꿈꾼 카를 5세의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연재돼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글로 영화를 보듯 재미있게 읽힌다.

〈휴머니스트·1만8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어린이·청소년 책

▲**행복한 인성독서=인성교육의 핵심 덕목으로 정직, 책임, 예(禮), 효(孝),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 8대 덕목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대상독서를 세 권씩 선정해 수록했다. 초등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을 모두에 두고 선정했으며, 토론 발문도 수준에 따라 조정하여 교사가 선택해 사용하도록 했다.**

▲**세상의 발견=아이들의 하루하루 속에서 빛나는 순간들을 포착해 아름다운 한쪽의 그림에 담긴 그림책, 80점의 그림에는 순수한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사람스럽게 또는 모험 가득한 모습으로 담겨 있다. 천진함을 그대로 드러낸 아이들은 세상과 자신과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고 있다.**

▲**대통령, 우리의 대통령=어둠이 짙게 깔린 공원에서 다람이는 모자를 멋지게 쓴 할아버지를 만나게 된다. 할아버지와 다람이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깊은**



속마음까지 터놓게 된다. 다람이와의 만남 이후 할아버지는 혼자만의 고민이나 걱정을 한시도 떨칠 수 있게 되고, 다람이도 할아버지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게 된다.

▲**바보 동자=나이가 오백 살이나 된 늙은 절에 사는 동자승 이야기. 세상 모든 게 즐겁고 재미있지만 한 아이는 다람쥐와도 친구가 되고, 배고파 짝퉁대는 쥐도 없었지만 하다. 그 덕에 바보라고 놀림 당하기 일쑤였다. 아이가 다람쥐와 놀다 느티나무에서 떨어진 어느 날, 십 년째 '말을 하지 않는' 수행을 하던 금강 스님은 아이의 말 한마디에 말문을 연다.**

〈어린이작가정신·1만1000원〉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 (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불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불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불링장 16래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정갈한 정갈한 그리고 혁신도시에 어울리는 공간입니다.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누,비오는날 9,900원)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 ▶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 열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